印,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 봉행

LBDFI 주최, 10일간 진행
1만여 명 출 · 재가자 동참
경전 독송, 명상, 토론회 등
"고전어 인정, 불교부흥 시작"

김민재 객원기자


각국에서 참여한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팔리어 대장경을 합송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

지난 12월 5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이 인도 보드가야에서 봉행한 '제19회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 소식을 전했다.

전 세계 1만여 명의 출·재가자가 참석해 다함께 불경을 합송하는 법회는 10일에 걸쳐 봉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송, 명상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매일 이어진다.

상좌부 불교 경전인 팔리어 대장경의 합송은 명상 수행이자 전 세계에 평화와 지혜, 자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법회를 위해 마하보디 사원에 부처님의 탱화와 전통 공양물, 팔리 경전으로 장엄한 불단이 차려졌다.

법회는 인도 '국제 붓다 담마의 빛 재단(LBDFI)'가 주최했다. 재단 관계자는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하고 가르침을 지키며 전파하기 위한 법회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송 법회에는 에릭 가르세티 인도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고위 인사 및 국제불교연맹(IBC) 아브히짓 할더 사무총장과 마하보디 사원 마하슈웨타 마하라티 총무가 참석했다. 이밖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이 참석해 각국 불교계 간의 국제적 협력과 화합을 보여줬다.

에릭 가르세티 대사는 인도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회상하며 "팔리어 대장경은 부처님의 지혜와 참나를 알아볼 기회를 준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며 "오늘날 우리는 국가와 사람들의 분열을 목도하지만 인도에서의 우정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인연과 자비, 단결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왕모 딕시 LBDFI 사무총장은 "전쟁과 분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해답을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부처님이 전한 인류 내면의 평화와 상호 이해, 화합이 그 해답"이라고 전했다.

아브히짓 할더 IBC 사무총장은 "부처님은 항상 염송과 행각을 전법의 방법으로 강조했다"면서 "최근 모디 총리의 지원에 따른 팔리어의 고전 언어 인정은 불교 부흥과 인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독송 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회를 개최한 LBDFI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전통 보존, 전법을 목표로 운영하는 국제 재단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순례 센터를 운영하며 순례자 후원 및 순례지 편의시설 개선, 국제 독송법회 봉행, 경전 배포, 인도 출가자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日 호류지, 새해 앞서 부처님 목욕 재개

금당 금동석가삼존상 중심
연말연시 맞이 청소 법요
손상 방지 건식청소 진행
"청정한 새해 맞이하길"



금당 불상을 청소하는 호류지 대중스님들.
사진출처=간사이 TV 보도화면 캡쳐

일본 나라현 이카루카의 천년고찰 호류지(法隆寺)가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법요를 봉행했다. 지난 12월 8일, 일본의 '간사이 TV' '요미우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호류지의 법요를 특별보도했다.

일본 호류지는 12월 8일 경내 금당 본존 '금동석가삼존상'을 중심으로 수미단위의 불상들을 청소했다. 불상들에 청소를 알리는 고불의식에 이어 봉송의식을 봉행한 후 청소가 이어졌다.

호류지 금당의 불상들은 모두 일본의 국보 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본존불인 금동석가삼존상은 623년 백제계 장인인 도리불사가 조성했다는 명문과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 북조와 백제 양식이 함께 확인된 장육불상으로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로 손 꼽힌다.

호류지의 청소 법요는 1993년 사찰이 세계유산에 등록된 이후 시작돼 30년 넘게 사찰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의 많은 고찰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상의 먼지를 털거나 법당의 다다미를 청소하는 법요를 봉행하는데, 호류지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상이 많아 특히 주목 받는다.

청소는 불상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건식 청소로만 진행된다. 보존을 위해 문화재 전문위원이 배석, 참관해 30분 가량 약식으로 법요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불상에 다시 점안식을 봉행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

호류지 주지 쇼카쿠 스님은 "지난 한해 다양한 재해가 많았다. 이런 재해들을 모두 털어내고 안전하고 청정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법당에서 청소법요에 함께 한 신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청소법요를 보기 위해 타지역에서 찾아왔다는 한 신도는 "불상의 몸에서 미세한 먼지들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의 먼지들도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불교 격언 게시판' 올해의 대상은?

불교전도협회 주관 시상식
'일상 속 불교' 글귀들 수상

일본의 각 사찰에는 불경의 문구나 조사어록 등에서 따온 격언을 일정 주기로 게시판에 올리는 '사찰 게시판'이 있다. 게시판의 내용은 독특한 표현이나 젊은 세대의 감성이 뛰어나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12월 5일, 네티즌의 투표를 걸쳐 선정된 사찰 게시판 글귀 대상작과 여러 수상작이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올해 대상과 여러 수상작으로 꼽힌 사찰 게시판의 문구들을 발표했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는 '빛나라! 사찰게시판 대상 2024' 콘테스트를 열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일본 각 사찰 게시판에 올라간 문구에 대한 투고와 제보를 받았다. 협회의 콘테스트는 지난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불교전도협회는 "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투고된 작품 3755개 중 수상작을 선정했다"며 "어떻게 불교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지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에다 토모아키 불교전도협회 출판사업부 과장은 "올해 투고작들은 기발함보다 차분한 분위기의 게시물이 많았다"며 "일상의 여러 곳에 불교의 가르침이 가득한 것을 대중들이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의 대상에는 히로시마시 소재 정토진종 오타니파 쵸가쿠지(超覚寺)다. 쵸가쿠지의 격언 "바라든 바라지 않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가 선정됐다. 중요한 사회 이슈로 고독과 소외가 꼽히는 가운데, 불교의 연기법에 근간해 모두가 연결돼 있음을 한 문장에 적절히 남았다는 평을 받았다. 쵸가쿠지는 지난 2021년 콘테스트에서도 "참을 인(忍) 자는 몇 번이라도"라는 내용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찰 게시판 대상을 수상한 초카구지의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사진출처=불교전도협회 누리집

이 외에도 미나미 사츠마시의 겐쇼시(顕證寺)의 "'나 있잖아'라는 건 자만"과 시즈오카시 호린지(鳳林寺)의 "방심하지 말라, 그래도 언젠간 퇴물이 된다"에 더불어 키쿠치치 세이쇼지(西照寺)의 "육아라는 건 나를 키우는 일" 등이 주요 수상작으로 꼽혔다.

네티즌들은 올해 수상작을 보고 "평범한 문장 속에 불교 가르침이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역시 불교의 깊이는 남다르다"고 평을 남기거나 "앞으로 사찰들의 게시판을 더 유심히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에 나툰 부처님 치아 진신사리

태국 · 중국 수교 50주년 기념
25년 2월 14일까지 친견 가능


태국 왕실 정원 사남루앙으로 이운된 불치사리를 사부대중이 친견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중국에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태국 방콕 사남루앙에 나투었다.

지난 12월 5일 해외 언론 'AP 통신'은 태국 10대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의 생일 및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중국의 불치사리(佛齒舍利) 대여 소식을 알렸다.

중국의 불치사리 대여는 태국과 중국 간 수교 50주년과 태국 국왕의 7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12월 5일 오전 초우작 시리닐 총리실 장관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은 불치사리를 태국으로 이운하기 위해 베이징 영광사(靈光寺)를 방문했다. 태국과 중국 양국 스님들이 이운의식을 봉행한 후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돈므앙 공군기지로 이운했다.

불치사리는 태국에 도착해 보석으로 장엄한 황금 사리탑에 담겨 왓 트라이밋, 태·중 우정의 길, 차이나타운 등 태·중 수교 중심이 30km를 거쳐 사남루앙으로 이운됐다. 불자 2000여 명이 불치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모여 사리 이운 행렬에 동참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태국 내각 각료를 비롯해 태국 주재 중국 대사 등 각국 대표들이 태국 사남루앙에서 봉행된 이운·친견법회에 참석했다.

불치사리는 12월 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콕 사남루앙 파빌리온에서 친견 가능하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불치사리 친견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사남루앙에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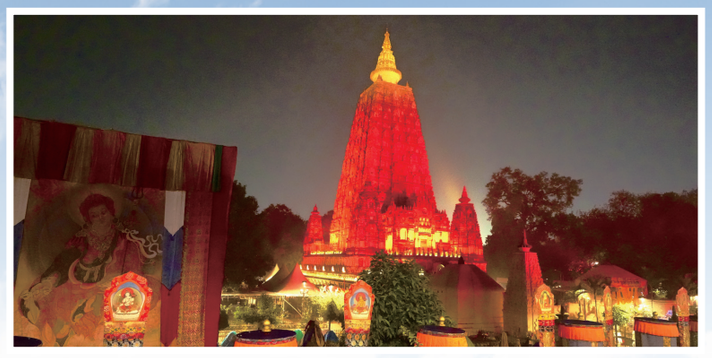
▶ 동참금 : 270만원 특별할인가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3월 04일 출발 ~ 3월 14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3월 24일 출발~3월 28일 도착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교토시내 숙박
▶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아라시야마 천룡사–동사–삼십삼간당–천태종 본산 연력사–나라 동대사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 동참금 : 19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4월 1일~8일(6박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10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
3월 22일~3월 26일(5박 6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 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 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